

공유경제 활성화사업 정착 추진

전주시, 16~22일까지 참여 법인·단체 공모... 방문·이메일 접수

정보·물품·공간·모빌리티 공유 등 사업유형별 아이디어 선정 지원

전주시가 공간과 물건, 재능, 지식 등을 공유해 시민들의 생활비를 줄이고,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공유경제 활동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2022년 공유경제 활성화사업에 참여할 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모집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전주시 공유경제 사업은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공간 공유 △물품 공유 △정보서비스 공유 △재능 나눔·기부 공유 등 공유경제 관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유경제 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그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는 올해 4개 안팎의 법인·단체를 선정해 총 1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법인·단체는 다

음 달부터 올 연말까지 전주형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정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전주시청 사회연대지원과(완산구 노송광장로 29, 8층)로 방문하거나 e-mail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사회연대지원과(063-281-2064)로 문의하면 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법인·단체·공동체들은 다양한 공유경제 활동을 펼쳤다.

대표적으로 '문화살롱'은 임대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공예작가들의 작업공간공유 및 재능공유, 우산과 공

구 등의 물품공유 등 통합적인 문화공유공간을 운영했다.

또한 '이중리맘 공동체'는 주민바리스타 교육 및 카페 시범 운영을 위한 공유카페를 통해 공유공간을 활성화했으며, '전주시공동체협의회'는 온두레 아울터 공유공간을 활용해 공동체 및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편 요리 교실과 수공예 작품 전시 공유공간 운영을 통한 재능공유은행을 운영했다.

김현도 전주시 사회연대지원과장은 "자원의 활용성을 높이고, 환경과 경제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의 방안이 되는 공유경제사업을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를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전주를 실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4월 15일까지 참여업체 모집

전주시가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4월 15일까지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시는 올해 총 9억2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방지시설 교체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의 저녹스버너 교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려는 경우 등에 지원을 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시설 종류 및 용량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

까지 가능하다. 최대 지원 금액은 △방지시설 2억7000만 원 △저녹스버너 1520만 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369만 원이다.

단, 최근 3년 이내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시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자동차 도장시설의 경우에도 환경부가 새로운 설계 기준을 마련하기 전까지 지원 대상에서 잠정 제외된다.

지원 조건은 보조금 지원받은 방지시설 등을 최소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사물인터넷(IoT)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전주시청 누리집(www.j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시 환경위생과 산단 대기관리팀(한국단소산업진흥원 실용화지원2동 2층)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북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함께 보조금 사업 대상, 방지시설의 종류와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대상 업체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민선5기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대기환경개선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승화원, 청명·한식 특별대책 기간 운영

4월 2~6일 유골 화장 예약 기수 20~40기 확대

전주승화원이 청명·한식을 맞아 개장 유골 화장 횟수를 늘린다.

14일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에 따르면 전주승화원은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청명·한식을 전후로 총 5일을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유골 화장 예약 기수를 20~40기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한식 당일인 6일은 하루 유골 화장에 40기를 운영할 예정이다. 평일 하루 개장 유골 화장 건수 4건의 10배 수준이다. 오전 8시 30분부터 모든 화장장로를 가동해 이용객 불편을 해소한다는 게 공단의 방침이다.

개장 유골을 화장하기 위해선 사전



이 묘지 소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개장 신고를 하고 개장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e-하늘' 예약시스템을 통해 화장 14일 전 예약을 하면 된다. 개장 유골 화장 이용료는 전주·완주 소재가 2만8000원, 도내 타 시·군

이 9만 원이다.

효자공원묘지 소재 개장 유골의 경우 화장 이용료가 전액 감면되며, 자연장을 포함한 봉안시설 사용료도 50% 감면된다.

한식은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4대 명절 중 하나다. 산소에 손을 대도 닿지 않는 날로 여겨 산소에 잔디를 새로 입히거나 비석을 세우고, 이장을 한다.

방현주 복지환경부장은 "청명·한식 기간 개장 유골 화장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후 화장로 보수를 마치고 그동안 축소 운영된 화장 횟수를 정상화해 이용객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기한 25일까지 연장

전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를 적용했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10만 원의 방역물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방역물품지원금 신청기간을 이달 25일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사업일 기준 현재 전주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16개 업종)된 소기업·소상공인 중 지난 1~2월 중 1·2차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업소 등이다.

신청 방법은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며, 방역 관련 물품을 구매한 후 영수증 사진을 업로드 하면 10만원 한도 내에서 실구매한 금액만큼 지원된다.

제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영수증 등이다. 필요시 통합위임장 또는 대리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풀라체·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투숙시설·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키텍(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16개 업종이다. /김윤상 기자

'백남준 탄생 90주년' 특별 전시회 개최

전주시, 서노송예술촌 '뿔밖의 미술관' 서 4월 1일까지 작품 16점·영상 등 공개

문화예술과 인권의 공간으로 탈바꿈한 전주시 서노송예술촌에서 미디어아트 장르를 개척한 세계적인 거장 백남준(1932~2006) 특별 전시회가 열린다.

전주시는 한국이 낳은 비디오아트의 창시자인 고(故) 백남준 탄생 90주년을 맞아 1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서노송예술촌 '뿔밖의 미술관'에서 '나의 환희는 거칠 것이 없어라'라는 주제로 특별 전시회를 한다.

전시는 전주시민과 전주를 찾는 여행객에게 창조적이며 거침없는 예술가인 백남준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명은 고인이 지난 1977년 발표한 LP 음반 제목 '나의 환희(축제는 거칠 것이 없어라(My Jubilee ist Unverhmet))'에서 따왔다.

이번 특별전시에서는 백남준 작가의 대표작인 △비디오 상들리에 no.4(Video Chandelier no.4, 1999) △갈 곳 없는 부처(Homeless Buddha, 1991) △나는 비트겐슈타인을 읽은 적이 없다(I never read Wittgenstein, 1999)를 포함한 작품 16점이 전시된다. 또한 백남준의 생애와 작품 활동 등이 담긴 다크멘터리 영상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한리안 프레젠테 대표는 "백남준은 여러 장르의 예술을 혼합하는 멀티미디어 시대에 서로 다른 것을 잘 섞어야 제맛이 난다는 '비빔밥 정신'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그 정신과 가장 어울리는 비빔밥의 본고장 전주에



전주시는 한국이 낳은 비디오아트의 창시자인 고(故) 백남준 탄생 90주년을 맞아 1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서노송예술촌 '뿔밖의 미술관'에서 '나의 환희는 거칠 것이 없어라'라는 주제로 특별 전시회를 한다.

서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어 뜻깊은 마음이 들었다"면서 "디지털 코드가 만드는 세상에서 공유와 공동의 배움을 실천한 예술의 혁명가 백남준의 정신이 '서노송예술촌'에 새롭게 다시 태어나 전주시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과거 섬매매업소로 사용되던 공간에 조성된 '뿔밖의 미술관'은 섬매매지결지였던 선미촌이 문화와 예술, 그리고 인권이 함께 어우러지는 '서노송예술촌'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평소 지역예술인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펼치는 전시공간인 이곳이 앞으로도

백남준 선생을 비롯한 세계적인 작가와 유명작품들도 만날 수 있는 문화도시 전주의 상징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노송예술촌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재생산업으로 인정받아 지난해 6월 제3회 거버넌스 지방자치단체장 부문 대상 수상했으며, 10월에는 도시재생 사례공유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전주시 사례를 배우려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 문화예술단체 등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